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 5:1-7 제2독서 필리피서 4:6-9 복음 마태오 21:33-43

**◎말씀 <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그것은 나를 향한 끝없는 믿음 때문이었다 >**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을 통해 다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밭 임자가 자기 포도밭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납니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입니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합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고 하면서 서로 짜고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입니다.

아들까지 보내는 주인, 아들을 보내면서 혹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주인은 어떠한 마음에서 아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떠한 마음에서?! 성경은 아들을 보내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단서 하나를 일러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불길한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소작인들이 내 아들이야 알아보고 존중해 줄 거라는 믿음이 계속 앞섰던 것입니다.

사실 주인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그 소작인들 옛날에는 착했어! 본래가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야, 내 아들을 보면 틀림없이 변화될 것이야. 틀림없어!' 주인은 끝까지 소작인들의 마음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작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착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 뿐입니다. 주인은 소작인들의 최후의 양심을 믿는 일념과 희망에서 아들을 보냅니다. 결과는 아드님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믿으십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당신의 사랑과 용서의 품에 받아들이기 위한 선택하신 뜻입니다. 이는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의 생명을 걸고 또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를 향한 용서와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느님의 그 사랑과 용서, 신뢰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0월6일(화)	연중 제27주간 화요일		교 무 금 주일헌금	\$ 2,110.00 \$ 634.00
10월7일(수)	목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미사예물 성소후원	\$ 20.00 \$ 65.00
10월8일(목)	연중 제27주간 목요일		사회복지 성물방	\$ 35.00 \$ 0.00
10월9일(금)	연중 제27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추석합동위령미사	\$ 100.00 \$ 1,730.00
10월10일(토)	연중 제27 간 토요일		합 계	\$ 4,694.00
10월11일(일)	연중 제28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63명
교무금 봉헌자	최정신(10-12월)임원호(9-12월)김도철(9-11월)김종순.이승렬(9-10월)김근수(6-10월)류승교(6월) 안기창(9월)김규철.신영후(10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방사, 축복, 축성의 차이는?

신부님! 이 목주를 ‘방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또는 ‘축성해 주세요’ 어떤 표현이 정확한 것인가요? 정답은 ‘축복해 주세요.’ 입니다. 예전에는 십자가상이나 목주, 패와 메달 등을 축복할 때에 방사(放辭)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은혜를 베풀다’ 또는 ‘성물에 축복하는 말씀을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영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별된 물건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복’(祝福)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축복이란 베네딕시오(benedictio)라는 라틴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좋은’(bene)과 ‘말’(dictio)의 합성어로 ‘좋은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말은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축복**의 대상에는 사람과 사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주님의 은총이 머물기 원하는** 사람, 교우들의 다양한 세속 활동을 위한 건물, 즉 새집, 사무실, 공장, 가게, 학교, 병원 등과 자동차나 전례에 사용되는 감실, 십자가, 공적으로 전시할 성화상 등에 축복합니다. 또한, 교우들의 신심 생활을 돕는 목주, 스카폴라, 성모상, 성인상 등에 행합니다. “주님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그의 모든 재산 위에 미쳤다.” (창세 39,5)

반면에 **축성**(祝聖)은 콘세크라시오(consecratio)라는 라틴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con)와 ‘거룩함’(sacratio)이 결합되어 ‘**거룩함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성은 하느님께 봉헌되어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이나 사물**들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미사 거행에서 봉헌된 빵과 포도주가 감사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 것을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마태 26,26) 그리고 처음 성당을 지어 하느님께 봉헌할 때 교구장은 제대를 기름과 기도로 축성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성직자에 오르는 서품이 바로 축성식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온전히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성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이나 물건들이 축성을 통하여 영원히 하느님께 속하도록, 오직 하느님을 위해 쓰이도록 구별시키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김구성.방지거,주용옥,김대식	김형일안드레아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문종연.안나,김학수,김덕수		생	박유진.루카 영육건강	박병수.벤자민
	김선희,김선영 의 영혼		생	김은영.프란체스카 영육건강	정의의모후Pr.

간  
장  
종  
지

◎노인께◎

우리도 언젠가 외로운 노인이 될 수 밖에 없지만  
 홀로 지친 노인을 도운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아픈 몸으로 설파하는 상징 시대의 복음,  
 우리가 소홀히 했던 세상의 따뜻함이며, 희망이며.

마종기 노렌조.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b>Samurai Sushi</b></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 Optometry</b></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b>1.2.3 Auto Body정비</b></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b>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b></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b>에어컨 수리</b></p> <p>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b>SNOW WHITE DENTAL</b></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b>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b></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b>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b></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b>Hair Story Salon</b></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b>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li> <li>·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li> <li>·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li> </ul>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b>최병엽공인회계사</b></p> <p>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장의사</b></p> <p>W.F.Gormley&amp;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b>게스관광</b></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a href="http://www.guesstour.com">www.guesstour.com</a></p>	<p><b>Suzie Hair World</b></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b>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b></p> <p><b>Payee to: St.J.H.C</b></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실내미사 재개안내(10월4일)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미사참가 가능인원:정원의25%(약60명)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2. 본당소독봉사(매주일 10시미사전후)  
미사 참례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미사전후 자발적인 소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3. 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미사중에 봉헌하시거나 사무실에 봉헌해주시고, 미사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CA95826  
Check 발행시: ST. J.H.C.
4. 달력 및 주보광고 신청(2021년도)  
신청기한:(달력)10월10일까지/(주보)연말까지  
광고비 :(달력)\$150 / (주보)\$150
6. 신자 주소록  
현재 게시판에 최종버전(9.20자) 게시중입니다  
최종확인 부탁드리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쇄를 원하지 않는 정보(예, 주소)는 사무실에 삭제요청 바랍니다.

- 7.St. Mary's묘소 한국섹션 근무자 모집  
주요업무:한국세션 홍보 및판촉(한국.영어가능 사무실제공하며 주2회 2시간이상근무 문의:고원석 연령회장(916-813-4440)
- 8.St.Mary's 묘소 오픈하우스 안내  
기간:10.3(토)~4(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
- 9.마스크 필요하신분은 연락해주세요(사무실)  
(어린이용 KN95 마스크)
- 10.감사합니다.  
김상범:감사헌금(\$100)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주 님 의 포 도 밭 은 이 스 라 엘 집 안 이 라 네

전례봉사	연중제27주일(10월4일)	연중제28주일(10월11일)	연중제29주일(10월18일)	연중제30주일(10월25일)
복 사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최진호.다니엘	김규철.레오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